

안녕하십니까.

어느덧 풍요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. 날씨가 갑작스레 쌀쌀해지고 일교차도 커지고 있는데,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떠신지 사뭇 걱정하게 됩니다.

불교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. 즉 중생 모두가 탐욕, 분노,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(三毒)으로부터 비롯하는 번뇌를 꺾어내야 하고, 존재 자체에서 비롯하는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하는 세계를 말합니다.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계로부터 마땅히 벗어나야 하건만, 이 땅을 벗어나려는 생각이 없으므로 중생들은 이러한 고통을 견디고 살아야 합니다. 그래서 사바세계란 인내를 강요당하는 세간, 인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바로 이 땅의 탐욕과 분노, 그리고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. 끊임없이 이윤과 이윤만을 쫓는 탐욕, 자신과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자에 대한 분노, 그리고 사회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에서 여러분의 고통이 비롯된 것입니다. 그렇기에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의 희생과 고통은 인욕(忍辱) 수행인 것이며,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소중히 여겨야 할 희생인 것입니다.

《금강경》〈능정업장분〉에는 “바른 일을 하고서도 남에게 비난을 받고 고초를 당하는 것은 지난 과거생의 죄업이 소멸되는 것으로 응당히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.”는 가르침이 있습니다. 여러분의 인고의 시간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탐욕과 분노, 그리고 어리석음을 알게 하고 만물이 차별 없이 진리와 진실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.

제가 보내드리는 작은 마음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